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29번	130번	67번	136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예수 부활하셨네)	(성전 오른편에서)	(예수 부활하셨도다)	

제 1독서 | 사도행전 9,26-31

화답송 |

-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우)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좌)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로다. ◎

제 2독서 | 요한 1서 3,18-2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5,1-8

영성체 후 묵상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가지가 됩시다.

Readings at Mass

First reading (Acts 9:26-31)

When Saul got to Jerusalem he tried to join the disciples, but they were all afraid of him: they could not believe he was really a disciple. Barnabas, however, took charge of him, introduced him to the apostles, and explained how the Lord had appeared to Saul and spoken to him on his journey, and how he had preached boldly at Damascus in the name of Jesus. Saul now started to go round with them in

Jerusalem, preaching fearlessly in the name of the Lord. But after he had spoken to the Hellenists, and argued with them, they became determined to kill him. When the brothers knew, they took him to Caesarea, and sent him off from there to Tarsus.

The churches throughout Judaea, Galilee and Samaria were now left in peace, building themselves up,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and filled with the consolation of the Holy Spirit.

제 1독서

그 무렵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

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 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 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래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들어났다.

Second reading (1 John 3:18-24)

My children, our love is not to be just words or mere talk, but something real and active;

only by this can we be certain that we are children of the truth and be able to quieten our conscience in his presence,

whatever accusations it may raise against us, because God is greater than our conscience and he knows everything.

My dear people, if we cannot be condemned by our own conscience, we

need not be afraid in God's presence, and whatever we ask him, we shall receive,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live the kind of life that he wants.

His commandments are these: that we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that we love one another as he told us to. Whoever keeps his commandments lives in God and God lives in him.

We know that he lives in us by the Spirit that he has given us.

Readings at Mass

제 2독서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Gospel (John 15:1-8)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dresser.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he cuts away,

and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to make it bear even more.

You are pruned already, by means of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Make your home in me, as I make mine in you. As a branch cannot bear fruit all by itself, but must remain part of the vine, neither can you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 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Whoever remains in me, with me in him, bears fruit in plenty;

for cut off from me you can do nothing.

Anyone who does not remain in me
is like a branch that has been thrown
away - he withers;

these branches are collected and thrown on the fire, and they are burnt.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you may ask what you will and you shall get it.

It is to the glory of my Father that you should bear much fruit, and then you will be my disciples.'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공지 사항

1. '여정 - 시즌 1' 안내

- 가톨릭 교리 강의 및 '거룩한 독서' 나눔 모임
- 기간: 5월 12일(주일) ~ 6월 30일(주일) (총 8회)
- 모임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 프린트물 및 나눔 준비를 위하여, 참여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11일까지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혹은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가톨릭 교회의 입교성사인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안내 부탁드리며, <u>5월 11일</u>까지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미사 참례자 수|

4월 21일	유아·청소년: 66명	성인: 32명
4월 28일	유아·청소년: 42명	성인: 10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 588-790-0921		
P/W : 69g	58g	

|전례 독서 봉사자|

이번주 (4월 28일)	이상명 다니엘, 안영규 필립보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이번주 (4월 28일)	마태오반
다음주 (5월 5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4월 20일 ~ 4월 26일)

봉 헌 금	1	\$216		
교무금	1	\$560		
구민식	권묘순	김정수	남궁영근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이재희
장호훈	조성희	주정자		

|기도 지향 |

- *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 세례를 받은 박서영 비아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